

SUNBO NEWS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 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기업

2016년 5월 15일

vol. 148

주요소식

대한적십자사와 MOU 체결 및 13번째 헌혈행사



우리 회사는 5월 10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 MOU를 체결하고 매년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식을 통해 양측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한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과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회사는 2010년부터 혈액 수급이 어려운 하절기, 동절기를 포함해 매년 2회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다대1, 2공장에서 뜻깊은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랑의 헌혈행사는 적십자사 헌혈차를 이용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매 회 자발적으로 헌혈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헌혈을 위해 전날 음주를 삼가고, 약물 복용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의 자세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해 감사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사랑을 나누는 헌혈에 동참하여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렇게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나 백혈병 아동 돕기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대한적십자 등 혈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혈액량이 5일분에도 미치지 못해 극심한 혈액부족현상으로 헌혈 참여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헌혈한 혈액은 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이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이번 헌혈 약정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헌혈 행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 혈액수급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으로 지역 사회에 헌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생명 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리 회사는 향후 헌혈캠페인 포스터를 사내에 부착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상반기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해져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행사 참여로 생명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랍니다.

다대1공장

품질경영부 최경호 부장, 품질경영부 방대혁 과장, 품질경영부 이현수 과장, 품질경영부 선민규 대리, 사업기획 김은식 계장, 사업기획 장철민 대리, 설계1팀 허 용 사원, 설계1팀 임경민 사원, 플랜트설계 김도훈 대리, 플랜트설계 장호신 부장, 개발3팀 이영우 대리, 개발1팀 차인욱 계장

다대2공장

생산관리 권영식 과장, 생산관리 배승용 과장, 품질경영부 박상계 부장, 조립2반 정혜성 사원, 조립2반 김도윤 사원, 자체지원 서원수 주임, 창선ENG 유영재 사원, 신일ENG 박찬수 반장, 신일ENG 이덕수 직장, 명진ENG 권병덕 사원

방문

알파라발(Alfa-Laval) 피터 칼버그 사장 우리 회사와 협력방안 논의



알파라발(주)의 피터 칼버그 사장과 알파라발코렉스(주)의 최영종 대표 일행이 4월 26일 우리 회사에 방문했다. 피터 칼버그 사장은 최근 납품된 아이템에 대한 검품과 향후 LNG사업 관련 비즈니스 확대를 논의하고자 본사를 찾았다. 알파라발(주)는 열교환, 원심분리 및 유체 이송 장치 등을 제작하는 글로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 지난 2013년에 우리 회사의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아이템을 발주 받아 제작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피터 칼버그 사장은 본사 다대1공장에 마련된 홍보관 투어와 함께 우리 회사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상

최금식 대표이사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4월 24일에 열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최금식 대표이사가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경영혁신으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한 것이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청장 표창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라는 소감과 다짐을 전했다.

사회공헌 **‘사랑의 징검다리’
우수후원기업으로 감사패 수여 받아**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고,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회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2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로부터 ‘사랑의 징검다리’ 우수후원기업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공적지원의 한계를 민간협력을 통해 보완하고자 2003년부터 부산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일보사,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거나 안타까운 사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매주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법정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웃을 발굴해 이들의 딱한 사연을 부산일보와 TBN부산교통방송을 통해 그 사연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한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지역 밀착 및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민간과 지역을 연계하여 기부와 후원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선도적 사업이다. 이제 ‘사랑의 징검다리’는 공공기관, 언론, 금융, 시민이 협력하는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민간 협력 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 회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징검돌이 되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징검다리’ 사업을 후원해왔다. 이 밖에도 우리 회사는 지역 사회를 보듬는 후원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



원하고 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지원을 돕고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살피고, 이러한 이웃들을 위한 보호망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민을 보듬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생과 나눔을 이어나갈 것이다.



PSA

**PSA선보아카데미
원어민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설로
선보인의 업무 역량 쑥쑥, 자신감 UP!**

글로벌기업으로써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사내에는 선보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



선보인에 대한 존중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배양한다는 이념 아래 설립된 PSA가 원어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선보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시작된 ‘PSA원어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바쁜 업무로 인해 따

로 시간을 내어 외국어 학습을 하지 못하는 선보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휴게시간을 쪼개어 수업에 참여할 만큼 교육대상자들의 열의 또한 높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다대, 구평공장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한 1차수 교육이 끝났다. 1차수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일부터 시작된 2차수 교육은 구평공장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 진행된다. 구평공장의 직원들은 1차수 교육에서 출석률이 80%를 넘었고, 전 부서에서 골고루 교육을 신청할 만큼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타 공장보다 높았다. 레벨테스트를 통해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온라인-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중간 과제가 있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테스트도 병행한다. 특이점은 2차수 교육에서는 1차수 교육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교육 업체 및 강사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커리큘럼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학습 분위기를 쇄신하여 수업의 효율성과 수강자들의 집중력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향후 PSA는 2차수의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점차 향상시켜 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한 사내 영어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구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PSA는 이를 염두에 두고 고비용과 오랜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선보인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회사소식

**선보 글로벌 패밀리
외국인 근로자 문화 탐방 행사 진행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여**

들뜬 모습으로 행사에 참가한 선보 글로벌 패밀리. 그들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행복한 미소가 맴돌았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주 및 해운대 일원을 돌며 한국 고유문화를 체험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각 나라에서 온 11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을 개최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주 불국사와 대릉원, 해운대 누리마루 등을 돌아보고 한국의 전통음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들은

잠시나마 타국 생활의 어려움과 피곤함을 잊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정을 마친 후 문화탐방 시 찍었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개별 지급했다.

이번 문화 탐방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평소 업무에 열중하느라 돌아볼 수 없었던 한국을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각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한국문화를 체험했던 첫 문화 탐방 행사는 높은 호응을 거두며 막을 내렸다. 향후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국 문화 탐방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문화를 체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차후 한국을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소식

우리 회사 로힝 사원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상 수상



지난 4월 7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포상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우리 회사 다대1공장 보온반에 근무하고 있는 로힝(ROHIM, 인도네시아) 사원이 가족을 떠나 떠나면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근로자 화합과 지역 경제 및 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외국인 부문 우수근로자로 선발되어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로힝 사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4년 10개월간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 우리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이후 근로기간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이듬해 재입국해 우리 회사에 다시 입사했다. 꾸준히 우리 회사에서 일한 로힝 사원은 그 누구보다 회사의 문화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만큼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로힝 사원은 평소 근면성실을 몸소 실천하는 근무태도로 주변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로 감사 문구가 적힌 감사패를 받아든 로힝 사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우리 회사는 고국을 떠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문화경영을 펼쳐가고 있다.

HSE

무사고·무재해 안전의식을 생활화하자!

안전은 타협 없는 절대 가치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을 습관화하여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일구어 내자!

01 안전보호구는 필수 착용

취부 또는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일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페인트 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방독마스크를 쓰고 지동 절단기의 경우 보안경을 착용하자.

02 작업발판과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발판은 최소 두 장 이상으로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끝단부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03 차·공구 점검은 철저히

불량 차공구의 사용으로 인해 부재가 전도되거나 낙하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용 전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04 누전차단기 설치와 접지 실시

전기콘센트, 플러그, 전선은 접지 가능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 누전, 단락 또는 절연 파괴에 의한 감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

05 그라인더 커버, 임의 절단 금지

그라인더 커버는 작업 시 여러분의 손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슛돌 파손 시 비산되는 파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회사소식

공장 및 부서별 자체 워크숍으로 가고 싶은 워크숍을 만들어내다

우리 회사는 연간 직원 복지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매년 전사 일괄 등반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달랐다. 4월 중 실시된 상반기 워크숍은 각 공장 및 부서별로 가고 싶은 워크숍 장소를 선정했고, 프로그램도 다양각색이었다. 이는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고, 직원들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선보패밀리의 화목함이 돋보였던 워크숍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경영기획부 (4월 23일~24일)
경영기획부는 한산도를 찾아 팀을 나누어 낚시, 명계 잡이, 조개 채취 등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한산대첩의 치열한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계승당을 찾았다. 경영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자력으로 역경을 개척했던 이순신 정신을 배우고 돌아왔다.



경영지원부 (4월 9일~10일)
가덕도를 찾은 경영지원부는 연대봉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족구, 배드민턴 등 게임을 통해 협동심을 길렀다.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열어 올해 경영지원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편안하게 논의하기도 했다.



구평1공장 (4월 22일~23일)
구평1공장은 임직원 및 가족들과 거제 가조도에서 야간 낚시, 대금산 등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체력을 다지고, 구평1공장의 주요현안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강론회를 개최했다.



다대2공장 (4월 30일)
다대2공장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 실행력을 높이고자 아미산 봉수대를 찾았다.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임직원 간의 화합과 협동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설계부 (4월 23일)
설계부 임직원 및 가족 70여 명은 화평생태공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피구, 발야구, 2인 3각 릴레이, 스피드 게임 등을 진행하여 남녀노소, 상하관계를 떠나 함께 화합했던 시간이었다. 이날 체육대회의 우승은 설계팀이 차지했다.



영업부 (4월 22일)
영업부는 본사 의전실에서 올해 매출 목표 달성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세미나 이후, 양산에 텐벨리로 향했다. 저녁식사를 하며 평소 나눌 수 없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단합을 다졌다.

CEO MESSAGE

배려 - 이등병과 인사계

몹시 추운 겨울날 한 이등병이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김 이병, 저기 취사장에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지만, 선임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핀잔과 함께 한바탕 고된 일차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다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김 이병, 그러다 손에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 해라.”

신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취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보았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혼만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년의 인사계 부사관이 그 결을 지나다가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 이등병의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김 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취사장에 가서 대야에 더운물 좀 받아 와라!”

이등병은 취사장으로 뛰어가서 취사병에게 보고했고, 금방 뜨거운 물을 한가득 받아 왔습니다. 그러자 인사계 부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 이병! 그 물로 언 손을 녹여가며 해라. 양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부사관 등 3명의 상급자가 모두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로 부하에게 도움이 된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태도로 상대를 배려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상대에게 도움을 줬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배고픈 소에게 고기를 주거나, 배고픈 사자에게 풀을 주는 배려는 진정한 배려가 아닌, 나의 입장에서 단지 내 만족감으로 행하는 허상의 배려가 아닐까요.

[출처: 따뜻한 하루]



사회공헌

영도공장 직원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반찬으로 사하구 부자가정 지원



지난 2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반찬 만들기’ 행사를 위해 4월 20일, 선보유니텍(주) 영도공장 직원 8명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준비한 세 종류의 반찬에는 영도공장 직원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사하구 거주 부자가정(父子家庭) 50가구에 전달되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영도공장 직원들은 이날 반찬을 만들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부자가정에서 소박한 정성이지만 저희들이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2주 간격으로 수요일마다 실시되는 사랑의 반찬 만들기 행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5월 4일과 5월 18일에는 사업기획부에서 참가하여 영양과 맛, 사랑을 담은 반찬을 만들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이 전제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 ☑ **본사** 임재호(05.03) 이한준(05.05)
노창근(05.06) 최광현(05.07)
김명주(05.08) 김도윤(05.09)
푼투(05.09) 권두철(05.10)
차성오(05.13) 소터(05.14)
성재경(05.14) 박진호(05.16)
안토대디(05.17) 지기환(05.20)
원종면(05.23) 김진형(05.24)
두홍(05.28) 허정민(음03.25)
허현정(음03.27) 최홍렬(음04.17)
최경호(음04.19) 박홍준(음04.21)
- ☑ **구평공장** 여태윤(05.01) 신평식(05.01)
김준호(05.05) 김한태(05.05)
김정식(05.20) 계동우(05.29)
안철순(음04.01) 김주환(음04.09)
이원규(음04.25)
- ☑ **영도공장** 송복순(05.05) 방재성(05.07)
유재기(음04.14) 이재근(음04.17)
손영돈(음04.23)
- ☑ **군산공장** 나태민(05.13) 강수아(05.16)
조지훈(05.18) 인드라짓(05.27)
김명진(음03.26) 최형호(음04.11)
황도술(음04.21)
- ☑ **영암공장** 이지(05.14) 김효희(05.17)
친타내(05.28) 김도희(05.30)
김대영(음04.02) 이인도(음04.03)
오충석(음04.14) 서형철(음04.20)



임사기념일

- ☑ **본사** 박상계(05.01) 고동욱(05.01)
박수빈(05.02) 최재호(05.02)
권순현(05.06) 전해정(05.11)
김동관(05.11) 류삼열(05.11)
김영민(05.12) 박기덕(05.14)
박문염(05.17) 임혁빈(05.19)
- ☑ **구평공장** 양승현(05.12) 현재구(05.19)
민병철(05.19)
- ☑ **군산공장** 김건우(05.01) 김덕현(05.02)